

Session 18 비판할 것인가, 비판하지 않을 것인가 (마 7:1-6)

(To Judge or Not to Judge?)

I. 도입

- A. 마태복음 5-6 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적인 역동성이 생겨나게 된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다. 새로운 관계들이 세워질 것이고, 어떤 오래된 관계는 변화될 것이다 (때로는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비판이나 비방 당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마 6:33)

- B. 우리는 팔복의 삶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 심판의 영에 의한 방해를 피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로 일어난다: 첫째, 자신보다 하나님을 덜 추구하는 사람을 비판함으로 일어나며 (7:1-5), 둘째, 산상 수훈의 삶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비판을 받음으로 일어난다 (7:6).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일지라도 이런 두 가지 상황의 시험을 당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 (마 7:1-6, 15)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 (마 7:1-20). 마 7:1-6 절에서, 그분은 우리와 다를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해주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인 형제들이며 (7:3-5), 또 하나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7:6).

- D. **비판, 판단(Judge):**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해주거나 교정해주기 위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 6:33). 어떤 이들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된 점이나 잘못된 어떤 일도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판단과 평가를 피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심판과 판단을 피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형제의 티를 빼주며 (5 절), “개와 돼지들”을 분간하고 (6 절), 거짓 선지자를 분간할 것을 말씀하신다 (15 절).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 7:24)

- E. 우리는 옳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되, 비판하는 영을 가지지 않고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에서 동기를 보지 않고 오직 “열매”(행동이나 말)만으로 판단한다 (마 7:16-20).

F. 성경은 회개하지 않은 수치스러운 죄나 실수를 밝히 드러내는 것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다. (마 18:15-18; 고전 5:1-11; 고후 11:12-15; 엡 5:11; 살전 5:14, 21; 살후 3:6-14; 딤후 5:19-20; 딤후 4:2; 딤향 1:10-13; 2:15; 3:10-11; 요일 4:1; 계 2:2, 14-15, 20). 이를 성경에 따라서 명확히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G.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되, 왕성하거나 명확함 없이 추구하는 듯 보이는 이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7:1-5).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비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기준의 비판을 받게 된다 (마 7:2).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서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을 일부분 결정하게 된다.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 7:1-2)*

H.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결점, 특히 우리와 가까운 이들의 결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 (마 7:3-5).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3-5)*

1. **티는 보고:** 우리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더 큰 문제)를 보지 않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봐서는 안 된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흐려짐으로 결국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작은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형제의 삶의 전체를 보지 못하며, 이로 인해 드러나는 그의 눈의 티만 보게 된다.
 2.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의 들보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올바르게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흐려지게 만드는, 더 넓은 영역에 대한 깊고 긴 묵상을 말한다. 이 더 넓은 영역은 다른 이들이 잘 모르는 우리의 자만심, 이기적인 동기, 타협 등을 말한다. 우리는 형제의 마음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3.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삶의 더 넓은 영역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보다 형제의 삶의 작은 영역에 대해 언급하는 경건에 대한 열심의 부족을 지적하셨다.
 4. **먼저:**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들보, 더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는 통찰력과 부드러움과 민감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삶에 있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고도 상세한 과정을 가짐으로, 우리는 형제를 돕되 더 효과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 I.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진리에 대해 충고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 7:6). 우리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진리를 먹여서는 안 된다.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될 시즌이 있기 마련이다 (행 13:46; 18:6; 19:9).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 7:6)*

1. **진주:** 이는 거룩하고 값진 진리를 말한다.

2. **개와 돼지:** 이는 거룩한 것(진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진리를(진주) 짓밟을 것이며, 결국은 당신에게로 향해 당신의 명성과 삶을 찢어놓을 것이다. 돼지는 이것저것 밟아대며, 들개들(자칼 등)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3. 유대인에게 있어 개와 돼지들은 이방인 이교도들을 말한다. 성경에서 개들은 의인을 핏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시 22:16). 그러나 초대 교회 때에는 이들은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제자가 아닌 자들”과 거짓 성도들을 의미한다 (마 5:47; 6:7, 32; 18:17; 눅 12:30; 빌 3:2; 벧후 2:22; 계 22:15).

II. 비판,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

- A.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드러내야 한다. 진리는 진실한 사랑에 힘을 더해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의사가 암을 “판단하되(선고하되)”, 아직 이 병을 다룰 시간이 있을 때에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다.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한글 KJV: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 B. 우리는 관용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득하며 의로운 심판을 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이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적인 모습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심판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교회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의로운 심판을 간과하게 되면, 리더십과 성도들, 가정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타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C. 예수님께서서는 거짓말과 부도덕이 증가하게 만드는 사역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칭찬하셨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하도록 두지 않고 이들을 드러냈다 (고후 11:12-13).

2...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 2:2)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관용)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 2:20)

- D. 바울은 음행을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더 큰 영적인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했으며 (고전 5:5), 회개치 않는 자들과 떨어질 것을 명령했다 (살후 3:6-14).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1-5)

- E. 오늘날의 교회에는 과도한 개인주의적 성향과 사적인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의 언약의 공동체(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행동 기준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각각의 성도들은 “판단”당하지 않고 어떤 삶이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F. 당신의 형제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조용히 가서 경건하게 권고하십시오 (마 18:15).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한글 KJV: 그의 잘못을 알려주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 18:15)

1.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우리는 먼저 형제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용히 만나야 하며, 우리가 더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나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2. **그의 잘못을 알려주라:**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여 마주할 때, 우리의 느낌은 달라지게 된다. 이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형제에 대해 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된다.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형제를 꾸짖을 것을 명령하셨다.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한글 KJV: 너에 대하여)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눅 17:3)

III. 올바르게 비판하고 판단하기

A.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올바른 과정**과,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며, **올바른 영**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필수적인 시간을 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형제의 회복을 위해 담대하게 서는 “왕성한 영성”을 필요로 한다.

B. **겸손하게:** 우리가 다른 이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에 대해 애통해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의 연약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5)

C. **정확하게:**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부분적인 정보로만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 대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정한 경우가 많다.

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 17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 18:13-17)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약 1:19)

D. **정중하게:** 우리는 형제를 과격하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소망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한 생각하며, 정중하게 회복을 위해 권면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최근의 실패에 대해 싸워나가며, 예수님께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 6:1)

1. 유순한 반응과 대답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과격한 어조는 분노가 일어나게 만든다.

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 15:1)

2. 한 사람은 긍휼을 경험할 때, 심판을 겪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화하게 된다.

13 ...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약 2:13)

- E.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하며, 그들이 즉시 회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고 시간을 줘야 한다. 우리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과정을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21 또 내가 그(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 2:21)

- F. **비밀을 지켜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에 대해 회복의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만 알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의 과거의 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지도자들은 엄중하게 비밀을 지켜줘야만 한다 (다른 지도자들이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 11:13)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9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 17:9)